
별 일 아니에요

이 소 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학교에서 조금 걸어가면 있는 작은 편의점은 근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만이 오고갔다. 잦은 실수에 하루에 스무 번씩 죄송하다고 말했던 것 같다. 일주일을 겨우 넘기자 차츰 일이 손에 익어갔다. 여전히 실수를 했지만 죄송하다고 말하는 일이 스무 번에서 열 번으로 줄었다.

그 날도 어느 때와 같이 계산대에 섰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술에 취한 듯한 손님이 들어왔다. 그러곤 음료 진열대로 가 소주 몇 병을 들고서 계산하지도 않고 그대로 나가려고 했다. 당황한 채로 ‘계산하셔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순식간에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내뱉고는 지폐 몇 장을 던지고서 매장을 나가버렸다. 당황해서 그 손님이 나간 자리만을 멍하니 응시하던 나는 바닥에 떨어진 천 원짜리 지폐들을 주우며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다른 날은 더 가관이다. 자기 딸 같은데 이럴 시간에 공부나 하라는 손님, 자기보다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는 손님, 왜 이렇게 비싸냐고 투덜거리는 손님, 물건의 포장을 먼저 뜯고 후에 몰랐다면서 급히 계산하는 손님, 상표명도 제대로 말하지 않은 채 ‘그거 쥐.’라고 말하는 손님. 이런 손님만으로도 충분히 지치지만 어느 날에는 점주님까지 난리일 때가 있다. 분명 ‘면접 때는 화장을 하고 왔으면서 왜 오늘은 화장을 하지 않았냐’는 말을 듣고 나는 잠시 당황했다가 교칙이 화장 금지라는 말을 하며 겨우 넘어갔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사람은 정말 많다. 당장 sns만 둘러보아도 알바생의 힘들다는 말들을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다. 친절하게 웃으며 원하는 것을 내오는 사람은 만만한 사람으로 인식된다. 사람의 밑바닥을 보려면 그 사람에게 한없이 친절해지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생각보다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내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 탓에 나는 한 달을 겨우 채우고 도망치듯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나는 너무나도 많은 진상 손님들을 만나보았다.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아픈 말을 듣는다. 기분이 나빠도,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도, 그 말을 한 사람이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서, 화내서 나아지는 게 없어서, 혹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면 주위에 ‘예민한 애’ 라고 인식될까 봐 매번 꼭 눌러 참고 넘어가야 한다.

예민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주관적인 말이다. 누군가는 자신에게 무례한 말을 한 상사에게 화를 낸 A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칭찬하지만, 누군가는 A의 행동이 너무 예민했다고 생각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낸다. 분명 누군가는 불편하게 느껴질 말들을 하며 문제점을 깨닫는 사람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가끔 친한 친구나 부모님에게 하소연하며 눈물을 떨굴 수밖에. 많고 많은 일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며 웃고 넘길 수밖에. 우리는 그렇게 무감각해진다.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다. 이미 모두가 겪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잘 모르겠다. 모두가 겪어보았고 너무 자주 일어나면 일상처럼 넘겨야 하나? 이런 말을 하면 몇몇 사람들은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네가 뭘 모르나 본데, 다들 이래.’, ‘그게 정상이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라는 말과 함께 아직 감각이 둔해지지 않은 우리들을 멈추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별 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생각의 힘은 무섭다. 결국 우리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만다. ‘별 일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야만 하는 건가? 세상을 변화시키면 안 되는 건가? 이게 정말 최선인가?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되기를. 조금 더 친절해지기를. 조금 더 민감해지기를.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